

보도설명자료 (17.8.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신재생 발전비율 20% 실현가능성 의문 (17.8.8. 디지털타임즈)

1. 기사내용

- ☐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의 20%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설비보급 규모인 1.7GW에 매년 2GW를 추가 보급해야 함.
- 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%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련자들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%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도된 매년 3.7GW의 설비보급 규모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을 기준으로 한 것임
 - 현재 수립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전망이 감소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규모는 감소함
- ☐ 전문기관의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 분석* 등을 감안할 때, 규제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%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*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('14.12)에 따르면, 국내 태양광 잠재량은 약 102GW, 풍력 잠재량은 약 59GW로 추산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장(044-203-5160)
김도엽 서기관(044-203-5170)

